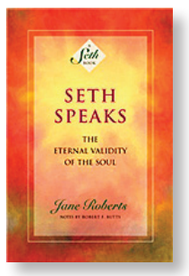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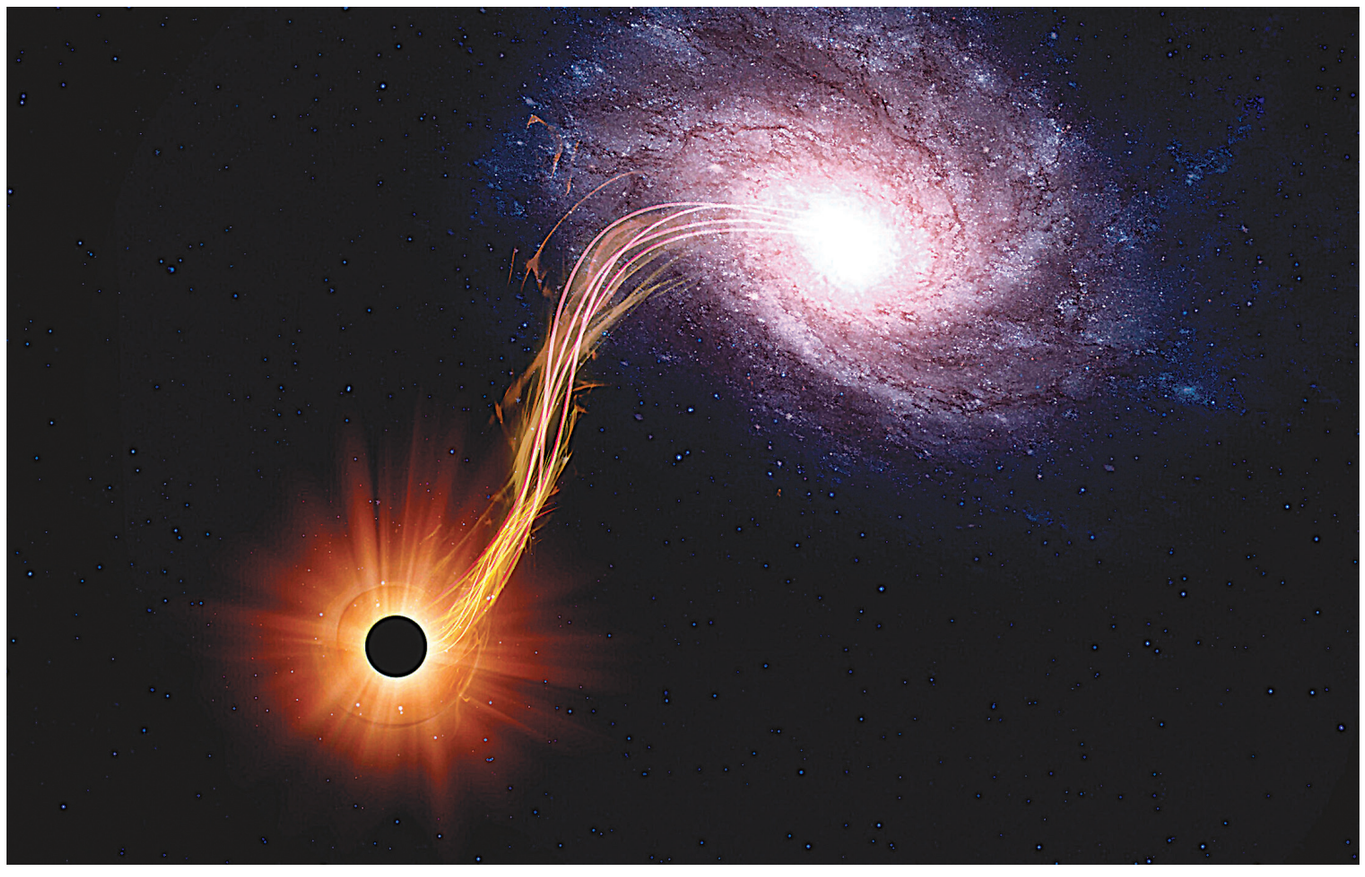
유영일의 '참나' 찾는 **행복한 책읽기** ❻ 제인 로버츠, "세스 매트리얼" ②



▶ 한줄 요약
프레임 벗어나면 고뇌와 갈등이 해소

한계 극복에서 참자유 획득을…





시간 여행과 의식의 영원성

기독교의 성경에는 기존의 과학으로는 아무래도 풀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서술이 다수 등장한다. 요한복음 8장 후반부에는 '자신이 말하는 진리를 믿고 따르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예수와 아무래도 수긍할 수가 없는 유대인들이 치열하게 언쟁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진리를 깨닫는다고 해서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니, 이게 도대체 웬말인가? "아브라함도 죽었고 예언자들도 이미 다 죽었지 아니한가? 그런데도 누구든지 당신의 말에 따라 사는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다니, 당신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단 말이오? 당신은 도대체 누구요?" 그들의 거친 항변에 대한 예수의 답변은 그들은 물론 후세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수수께끼를 남겨주게 된다.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기를 고대하면서 즐거워하였고, 마침내 그것을 보고 기뻐하였소." 아브라함이 죽은 지가 언제인데, 예수가 활약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했다니! "아니, 당신은 아직 나이가 쉰 살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단 말이오?" 여기에 대한 예수의 다음 답변은 더욱 더 미스터리이다. "내가 진정으로 당신들에게 밝히겠소.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소!"

헬라어 본문에서 옮긴 영어 성경은 분명히 "Before Abraham was born, I am!"이라고 현재형을 사용하지만, 한글판 성경 중 공동번역은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있었다"라고 과거형으로 번역해 놓았다. 과거 현재 미래로 흐르는 직선적인 시간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구절이지만, 이런 대목이야말로 예수의 됨됨이와 그가 말하고자 하는 '진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아닌가 싶다.

제인 로버츠가 채널링한 세스라는 존재는 인간의 두뇌 속에서만 존재하는 과거 현재 미래의 고정된 시간관념에 일대 혁명을 가져올 만한 발언들을 통해서 '시간 여행'이라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안으로 얼마든지 편입될 수 있음을 누누이 강조한다.

"과거란 것은, 육체의 두뇌와 비육체의 마음 안에 있는 일련의 전자기적인 접속점으로서 존재합니다. 이러한 전자기적인 접속점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미래란 것은 마음과 두뇌 속의 일련의 전자기적인 접속점들로 구성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과거와 현재는 똑같은 정도로 실재합니다. 여러분은 현재의 행위가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현재 행위가 과거 역시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떠한 행위든지 다른 모든 행위를 변화시킵니다. 그러므로 현재 여러분이 하는 행위는 과거의 행위들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과거 속에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에 반작용을 가함으로써 여러분 자신의 미래에 영향을 끼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 개인이 과거 속에서 미래의 사건에 반작용을 가함으로써,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시공간에 대한 우리의 관념은 우리의 신경학적인 프레임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물리적 현실 안에 갇힐 수 없는' 우리의 부분이 있으니, 우리의 그 부분은 오직 '영원한 지금'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모든 것을 아는 그 부분이 우리의 전체 자아이며, 있는 그대로의 우리 자신이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전에도 있는' 예수의 의식과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단군 이전에도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가 신과 동일시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신과 동일시될 수 있는 근거가 자리할 수 있게 된다. 모세가 만난 신이 자기 자신의 정체를 묻는 모세에게 "I am who I am"(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라고 했듯이, 예수도 "스스로 있는 자"이고, 우리의 본질 또한 "스스로 있는 자"인 것이다.

내면의 자아는 무한한 우주
무궁무진한 지식·경험 창고
자아란 굴레를 벗어난 해탈
세상변화 새로운 단초 제공

인간 세상은 신의 꿈 놀이마당

세스는 말한다. "여러분이 좋다면, 신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그를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신은 한 개체가 아니라, 에너지의 총합입니다. 신의 에너지는 너무도 믿을 수 없을 정도여서 우주 전체를 형성할 정도입니다. 그 에너지는 모든 우주의, 모든 장과 시스템들의 안과 저변에 있기 때문에,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까지도 알아차립니다. 왜냐하면 신은 떨어지는 참새 자체이기도 하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세계는 어떻게 창조되었고, 창조되고 있는가? 신은 자신의 거대한 상상 속에서, 무한대의 가능성과 의식을 지닌 개인들을 본다. 이런 가능성 있는 개체 자아들은 신의 꿈 속에서 자기 자신들을 보고, 현실 속으로 자신들을 풀어 달라고 목청 높여 외친다. 신은 그들이 풀려 나가기를 열망하면서, 자기 자신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수단을 찾는다. 그리고는 마침내, 사랑과 열망으로, 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들을 흘러나가게 하고, 그들은 자유를 얻게 된다.

"신은 자신이 창조한 가장 작은 미물에게서까지도 사랑을 느낍니다. 창조를 위해 번민의 상태에서 씨름했던 의식 하나하나의 독특함과 사랑스러움을 알기 때문입니다. 신은 각자의 의식이 성취한 저마다의 진보를 보면서 승리자처럼 기뻐합니다. 자기 자신의 표현이기도 한 이들 각자의 가장 하찮은 창조 행위에도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지요"

"존재하는 모든 것인 신의 모든 부분은 그칠 줄 모르고 변화합니다. 신은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해서 끝없이 추구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추구하는 것이 창조적인 행위이자 모든 행위의 핵심이기 때문이지요."

개체적인 자아가 자기 자신을 알기를 추구하고, 신의 한 부분으로서의 자기 자신을 깨닫고, 스스로 한계 짓는 프레임을 열어젖히고 해체하여 신의 사랑에 접속하게 되면, 개체적인 자아가 안고 있었던 모든 고뇌와 갈등이 해소되는 자유와 해방감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개체는 자기 자신의 근원을 기억하고, 한때 신이 자신을 꿈꾸었던 것처럼 이제는 자신이 신을 꿈꾸게 된다. 웅대한 저 근원을 열망하고 동경하면서, 신이 만물을 창조했듯이 개체 또한 자신들의 꿈에 현실성을 부여하고 싶어 한다. 스스로 원한 결과로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개체가 영위하는 모든 삶은 사실 신의 창조성이 개체의 피 속에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내면의 자아는 사실상 무한 용량의 저수지나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 얼마든지 지식과 경험을 끌어내어 쓸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것이든 선택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수많은 일들은 결국 이 깊은 근원의 반영이자 그림자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은 다차원적인 존재로서, 열정으로 가득 찬 이 우주의 드라마를 창조하고, 거기에 참여합니다. 그 드라마는 실현화의 기술을 터득키 위한 것으로, 무한한 창조의 근원 안에서, 진화의 끝없는 가능성 위에서 펼쳐집니다."

실현화의 기술

지구에서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개체적인 자아는 수많은 조건과 한계 상황에 갇힐 수밖에 없고, 한계 상황은 인간으로 하여금 결핍감과 함께 바람(욕망)을 안고 살아가게 하지만, 이미 부여된 신성(불성)의 창조력을 발휘하여 현실의 마스터이자 달인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에게 부여된 운명의 최종 목적지라고 할 수 있다. 세스는 말한다. "당신에게 주어진 가장 경이로운 선물은 무엇일까요? 생각을 외부로 투사함으로써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형상으로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당신은 깊은 무의식의 차원에서, 위대한 분별력과 초자연적인 투시력과 세포 하나하나에 대한 면밀한 지식으로써, 물리적인 형상을 지어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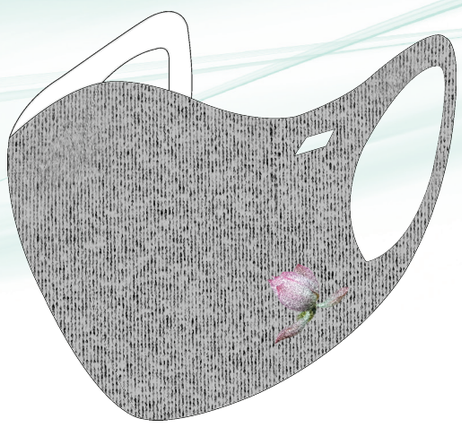
세스는, 몇 해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크게 유행한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서도 수십 년 전에 이미 세세하게 발언한 바 있다. "강렬한 감정이 동반된 마음의 이미지는 물리적인 대상물이나 환경, 사건 등을 창조하는 일종의 청사진입니다. 느낌이나 생각, 마음의 이미지의 강렬함이 물질화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끌어당기는 자력이 강할수록, 물질화도 더 빨라집니다."

삶 속에 풍요를 창조하는 마음의 법칙을 세스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마음의 이미지를 생생하게, 그리고 강렬하게 그리게 되면, 물리적인 사건으로 형상화되는 속도도 그만큼 빨라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자체도 사실은 우리가 언젠가 꿈꾸었던 내용물들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꿈을 지어 나가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물리적 현실을 지어 나간다. 현재의 불만족스러운 상황들도 사실은 아주 오래전에 우리가 꾸었던 꿈일 수밖에 없다. 지금 나의 형편이나 처지를 다른 사람들이나 환경의 책임으로 돌려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외부의 누군가가 우리에게 삶을 짐 지운 것이 아니다. 나의 삶은 물론이고 세상 전체가, 우리의 됨됨이 자체이다. 세상이란 우리가 지어 온 내면의 자아들이 꿈꾸어 왔던 것이 물질화되어 나타난 것이다.

그러니 지금 어떤 꿈을 어떻게 꿀 것인가? 그것만이 중요하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 입맛에 맞지 않더라도, 변화시켜야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지 다른 무엇이 아니다. 개인이든 집단이든 마찬가지다. 자기 자신의 의식을 확장하는 일, 이것만이 진정한 효험을 발휘할 수 있는 유일한 변화의 길이다. 〈작가〉

20회 세탁 후에도 90% 기능유지!
KOVI 기능성 비말차단 패션·구리마스크
ANTI-BACTERIAL · DEODORIZATION · 항균 & 소취
FDA 등록





기능성 비말차단 패션마스크
(연꽃문양/4색)
●재 질 : 폴리에스테르 92%, 스판 8%
●색 상 : 연회색, 백색, 청색, 검정색
●판매가 : 4개 1셋트 15,000원 (개당 3,750원)
/ 3만원 이하 택배비 3,000원 별도
(제주·도서지역 택배비 6,000원)
●기능성 순수 국산원단 사용

100개	300개	500개	1,000개	2,000개
(개당) 2,500원	(개당) 2,400원	(개당) 2,300원	(개당) 2,200원	(개당) 2,000원



기능성 비말차단 구리마스크
(연꽃문양/진회색)
●재 질 : 폴리에스테르 81%, 구리 7%, 스판 12%
●색 상 : 진회색 (그외 색상 주문 가능)
●판매가 : 4개 1셋트 22,000원(개당 5,500원)
/ 3만원 이하 택배비 3,000원 별도
(제주·도서지역 택배비 6,000원)
●기능성 순수 국산원단 사용

100개	300개	500개	1,000개	2,000개
(개당) 3,500원	(개당) 3,400원	(개당) 3,300원	(개당) 3,200원	(개당) 3,000원

Deodorization 소취 · Antibacterial 항균 · Anti-Splash 비말차단 · UV Protection UV차단 · Fast Drying 빠른건조 · Reusable 재사용가능



※ 색상 및 디자인 변경가능하오며, 로고 및 사찰명 인쇄시 장당 300원 별도 추가됩니다.
※ 대량주문 및 전체디자인 변경 등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문의 : 02)732-1520 www.mahamall.co.kr